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이 간호학생의 진로성숙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Effect of Career Empowerment Program on Career Maturity,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Employment Stres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김영희

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과

Yeong-Hee Kim(gyumdung20@naver.com)

요약

본 연구는 취업캠프와 실무자 실전면접 활용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이 간호학생의 진로성숙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를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 실시 전·후에 파악하고자 하는 단일 군 전후설계의 원시실험연구였다. 대상자는 간호과 3학년 졸업반 247명이었다. 연구결과로, 진로성숙도는 평균 2.59점에서 2.57점으로 감소하였으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평균 3.44점에서 3.65점으로 증가하였으며($t=8.67, p<.001$), 취업스트레스는 평균 2.94점에서 2.83점으로 감소하였다($t=-3.46, p<.001$).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 전후에 따른 특성별에서, 진로성숙도는 취업률이 높아서 지원한 학생($F=3.15, p=.025$), 현재 취업준비도가 높은 학생($F=2.69, p=.032$)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현재 취업준비도가 높은 학생($F=1.22, p=.031$)에서, 취업스트레스는 현재 취업준비도가 낮은 학생($F=2.52, p=.030$)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중심어 : |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 | 진로성숙도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취업스트레스 |

Abstract

This study was pre-experimental research designed to compare the differences between pre-and post-program on nursing student's career maturity,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employment stress. The subjects were 247 junior-year students in nursing school. Mean value for career maturity was from 2.59 to 2.57,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from score 3.44 to 3.65 in average($t=8.67, p<.001$), and employment stress from score 2.94 to 2.83 in average($t=-3.46, p<.001$). Career maturity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high employment rate($F=3.15, p=.025$), high career preparation($F=2.69, p=.032$).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employment stres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high career preparation($F=1.22, p=.031$) and low career preparation($F=2.52, p=.030$).

■ keyword : | Career Empowerment Program | Career Maturity | Career Decision Making Efficacy | Employment Stress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대학생 시기는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앞두고 있는 시기로 학업 성취와 더불어 장래 진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준비를 하면서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다[1]. 진로는 인생에 있어서 장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되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중계역할을 하므로[2], 학생들은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해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미래의 직업생활을 준비해야 한다[3]. 간호 대학생들의 경우 간호학에 입문 할 때부터 79.9%의 대상자들이 국내 종합병원에 취업할 것이라는 병원취업에 대한 직업결정을 한 상태로 진로를 결정하고[4] 졸업 후의 취업률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에 대한 심사숙고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졸업 시점에는 진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기도 한다[5]. 이러한 진로선택에 대한 불안감은 성급하게 진로를 선택하게 되어 입사 1년 이내 신규간호사의 이직 의도는 69%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5]. 이러한 이직은 간호 서비스의 질 하락과 인적자원에 의존하는 의료인력 양성의 비용 손실이 우려가 되며 자신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진로결정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채 진로에 대한 충분한 탐색 없이 간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면 간호사가 된 후에도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간호사 진로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교육을 제공해서 자신이 원하는 진로방향을 선택하고 계획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진로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간호학생들이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고 직업세계의 이해를 기초로 하여 자기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선택하는 진로성숙이 먼저 형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6].

진로성숙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 직업선택에 대한 책무감을 가지고[7] 선택한 직업세계에서의 성공적인 수행을 할 수 있는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는 것이다[8]. 자신과 직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수록 향후 선택하고자 하는 직업 및 진로에서 만족한 생활을 영위할 가능성이 커지며, 긍정적인 직업관

과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직업 준비행동을 통해서 졸업 후 간호사로서의 직무를 담당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해서 간호전문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 진로활동에 활발하고 진로결정에 적극적으로 도달하기 위한 개인적 효능감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라고 한다[9].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과 가능성에 대한 신념으로[9], 진로개발과 직업수행을 위해 직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고 준비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10]. 따라서 대학생 시기에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탐색과 준비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수행하게 되므로[7],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해서 직업세계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9]. 이처럼 간호학생들이 향후 간호사로서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진로에 대해 선택하고 결정할 때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직업에 대한 준비를 구체화해야 한다.

간호 대학생들은 구체적인 진로교육 즉 간호사 채용 방법이나 면접, 필기시험 내용, 직종별 직무내용 등 전공과 관련된 전공특성을 반영한 진로교육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 따라서 이러한 요구 및 특성을 고려하여 취업을 앞둔 졸업반 학생들에게 취업캠프를 통한 자기탐색과 이해를 한 후, 병원의 인사담당자인 간호부서장이 실제 면접관이 되어서 입사 관련 다양한 피드백을 적용한 맞춤형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은 간호학생들에게 향후 간호사로서의 진로 정체감을 형성해서 간호업무에 대한 간호 전문직관을 형성하고 업무 만족도를 증진시켜서 진로준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서, 진로성숙도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함양해서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진로선택에 대한 자신감 증대로 취업역량을 자기 주도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취업역량강화를 통해서, 대학생들이 겪는 스트레스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취업스트레

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1]. 취업스트레스는 비교적 취업이 용이한 간호대학생의 경우에도 학교생활 적응 및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2]. 취업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할수록 건강한 대학생활을 보낼 수 없고 자신감이 결여되어 합리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1]. 특히 4년제 간호 대학생에 비해 3년제 전문대학생은 학력에 따른 진로장벽과 스스로 갖게 되는 불합리한 신념으로부터 오는 내적인 진로장벽으로 인한 취업 스트레스가 심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진로성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13] 취업스트레스는 진로성숙도가 낮을 때 심해지므로[6], 간호학생의 진로성숙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취업스트레스 정도를 알아보고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이 졸업반 간호학생들의 진로성숙도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취업스트레스는 감소시키는지 사전 사후로 비교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양질의 진로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일 간호대학의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이 진로성숙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취업스트레스 정도에 미치는 효과를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에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 전과 후의 진로성숙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취업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제 특성별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 전과 후의 진로성숙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취업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한다.

3. 용어정의

3.1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이란 대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을 목적으로 직업정보를 탐색하고 결정을 촉진시키며 직업에서 요구되는 기술 및 태도를 개발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14], 본 연구에서는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을 단계별로 구성하였으며 1단계는 취업캠프로서 전문컨설턴트 2-3인이 학생 43여명을 대상으로 1일 8시간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단계는 실무자 실면접으로서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취업기관의 간호부서장으로 구성된 면접관 3인 대 학생 5인으로 구성되어 한 팀당 약 30-40여분 정도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1단계와 2단계 프로그램이 총 2일간 진행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3.2 진로성숙도

진로성숙도란 개인이 진로를 선택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경우 자신을 명확히 평가하고 현실과 타협하여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준비도[15]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Crites(1978)가 개발한 진로성숙도 검사(CMI: Career Maturity Inventory)를 김봉환[16]이 수정한 47문항 5점 등간척도로 측정된 것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진로 결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개인의 신념 정도로[17], 본 연구에서는 Betz, Klein and Taylor(1996)가 개발하고 이은경[18]이 타당화 시킨 25문항 5점 등간척도로 측정된 것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4 취업스트레스

취업스트레스란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이 최초의 취업 준비 과정에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로[19], 본 연구에서는 정의석과 노안영[20]의 15문항 5점 등간척도로 측정된 것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취업캠프와 실무자 실전면접을 활용한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이 일 대학 졸업반 간호학생의 진로성숙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고자 시도된 단일군 사전사후 설계의 원시실험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2년 7월 3일부터 7월 13일까지 J대학 간호과 3학년 재학생 전수(312명)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실험연구 참여를 허락한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연구 대상자에게 구두와 서면동의를 구한 후 실험연구를 실시하였다. 312명 중 탈락자 65명을 제외한 총 247명(79%)을 실험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 도구

3.1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은 취업을 앞둔 간호과 졸업반을 대상으로 2단계의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1단계는 취업캠프 프로그램으로서 취업전문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1일 8시간의 특강 및 실습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전 학생이 참여하도록 하였다. 2단계는 실무자 실전면접 프로그램으로서 1단계 프로그램 참여 1주일 내에, 대학병원의 간호부장 및 간호과장을 면접관으로 하여 학생 5명이 팀을 이루도록 하여서 팀당 약 30-40여 분간 면접을 통해서, 각 면접에 대한 주관점을 개인별로 피드백을 받도록 하였다.

1단계는 취업캠프 프로그램으로서 취업전문교육기관에서 4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운영하였다. 4개의 세부 프로그램은 이미지관리 및 의사소통기술, 입사서류 실전작성, 면접강화 트레이닝, 모의면접 테스트로 1일 8시간으로 운영하였으며 1개 반 약 43명인 7개 반으로 구성하였으며 한 개 반 당 전문컨설턴트 2-3명이 8시간 동안 특강 및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실습프로그램으로 구성 하였다. 2단계는 실무자 실전면접 프로그램으로서 취업선호도가 높은 12개 대학병원의 간호부장 및 간호과장 21명을 초청하여 간호부장 및 간호과장 3인을 1개의 팀, 학생은 5명을 1개의 팀으로

구성하였다. 실무자 실전면접 방법은 12개 기관의 간호부서장을 3개 기관끼리 무작위로 혼합하여 1개의 팀을 이루어서 한 개 반 즉 학생 5명으로 구성된 8팀을 1일 8시간 동안 진행하였다. 실무자 실전면접 일주일 전에 각 병원의 간호부서장에게 각 학생별로 제출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소를 발송하여 각 면접관들이 학생들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전 면접 시에는 각 학생별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소 작성하는 방법 및 각 병원에서의 구두시험을 포함한 면접 태도 및 주의사항 등 면접방법을 구체적으로 피드백 하였으며, 학생 한 개의 팀 당 약 30-40여 분간 진행하였다.

각 개인 별로 정해진 면접관에 의해서 면접의 주관점을 피드백 받은 후에는, 3학년 학생 전원과 12개 기관의 간호부서장과의 만남을 통해서 모든 학생들이 다른 병원에서의 구두시험 및 면접에서의 구체적 정보획득을 통해서 직업에 대한 준비를 구체화하도록 하였다.

3.2 진로성숙도

진로성숙도는 Crites(1978)가 개발한 진로성숙도검사(CMI: Career Maturity Inventory)를 김봉환[16]이 수정한 도구로서 5개의 하위요인(결정성, 타협성, 관여성, 독립성, 성향성)으로 구분되며, 총 47문항의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도구개발 당시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8$, 본 연구의 cronbach $\alpha = .93$ 이었다.

3.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Betz, Klein and Taylor(1996)가 개발하고 이은경[18]이 타당화 시킨 도구로서 5개의 하위요소(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설정, 미래계획, 문제해결)로 구분되며, 총 25문항의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도구개발 당시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93$, 본 연구의 cronbach $\alpha = .89$ 이었다.

3.4 취업스트레스

취업스트레스는 정의석과 노안영[20]이 개발한 15문항의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도구개발 당시의 신뢰도는 cronbach ' α=.83, 본 연구의 cronbach ' α= .85이었다.

4. 자료수집방법

간호와 졸업반 학생 전수를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연구 참여에 대한 익명성 보장, 자발적인 연구 참여 동의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참여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이 없음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구두와 서면으로 설명하고 자발적인 동의서를 받아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최대한 고려하여 연구 참여 대상자를 보호하였다.

1단계 취업캠프와 2단계 실무자 실전면접은 각 지정 강의실과 대회의실에서 실시하였기에, 실험연구결과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는 지정강의실과 대회의실과는 다른 층에 위치한 세미나실에서 학생들이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에 자율적으로 작성하도록 한 후, 수거함에 넣도록 하였다.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AS 8.2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 첫째,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 둘째,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사후 인식 정도는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셋째, 진로성숙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취업스트레스는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 전 후 비교는 paired t-test를 구하였다.
- 넷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 전후 진로성숙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취업스트레스는 ANOVA 및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6.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대조군을 설정하지 않은 원시실험연구이므로 제 3변수 개입 등 외생변수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일개 대학의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모든 간호학생에게 확대 해석할 수 없다.

III.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성별은 여성(91.9%), 남성(8.1%)이었으며, 간호과 지원 동기는 높은 취업률(35.6%), 적성(32.4%), 권유(24.3%), 기타(7.7%)로 나타났다. 또한 졸업 후 진로는 병원(80.4%), 공무원(8.1%), 진학(4.9%), 보건교사(1.6%)였으며 진로결정의 도움 요인은 본인(47.0%), 가족(22.2%), 친구들(15.4%), 교수(8.7%)로 나타났다. 현재의 취업 준비도는 조금 준비 안 됨(35.6%), 보통(24.7%), 전혀 준비 안 됨(20.2%), 조금 준비됨(14.2%), 많이 준비됨(5.3%)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의 영향요인은 순수한 실력(49.4%), 취업운(25.1%), 가정의 배경(4.9%), 학교의 명성(4.9%), 나의 외모(4.0%), 기타(11.7%)로 나타났다[표 1].

2.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사후 인식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사후 인식으로 진로결정시 취업캠프의 도움여부는 사전에 평균평점 3.78(±0.74)점에서 사후 3.97(±0.63)점 이었으며, 진로결정시 실무자 실전면접의 도움 여부는 사전에 평균평점 3.81(±.78)점에서 사후 4.16(±.71)점으로 나타났다[표 2].

표 1. 일반적 특성

(N= 247)

특성	구분	N(%)
성별	여	227 (91.9)
	남	20 (8.1)
지원 동기	적성	80 (32.4)
	높은 취업률	88 (35.6)
	권유	60 (24.3)
	기타	19 (7.7)

졸업 후 진로	병원	206 (80.4)
	보건교사	4 (1.6)
	공무원	20 (8.1)
	진학(학점은행제)	12 (4.9)
	기타	5 (2.0)
진로결정 도움 요인	교수	24 (8.7)
	본인	116 (47.0)
	친구들	38 (15.4)
	가족	55 (22.2)
현재 취업 준비도	인터넷	14 (5.7)
	전혀 준비 안 됨	50 (20.2)
	조금 준비 안 됨	55 (35.6)
	보통	61 (24.7)
	조금 준비됨	35 (14.2)
취업 영향 요인	많이 준비됨	13 (5.3)
	순수한 실력	122 (49.4)
	가정의 배경	12 (4.9)
	나의 외모	10 (4.0)
	학교의 명성	12 (4.9)
	취업운	62 (25.1)
	기타	29 (11.7)

표 2.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사후 인식 (N= 247)

특성	사전	사후
	M±SD	M±SD
진로 결정시 취업캠프의 도움여부	3.78±.74	3.97±.63
진로 결정시 실무자 실천면접의 도움여부	3.81±.78	4.16±.71

3.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 전후 진로성숙도,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및 취업스트레스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 전후에 따른 진로성숙도는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 전 평균평점이 2.59(±.34)점에서 2.57(±.44)점으로 감소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0.74, p=.461$).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 전의 진로성숙도 영역 중 가장 낮은 영역은 <참여성>으로 평균평점 2.43(±.44)점 이었으며, 후는 <성향성>으로 평균평점 2.44(±.61)점으로 나타났다.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 전의 진로성숙도 영역 중 가장 높은 영역은 <결정성>으로 평균평점 2.87(±.42)점이었으며, 후에도 <결정성>으로 평균평점 2.81(±.49)점으로 나타났다.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 전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 전 평균평점이 3.44(±.39)점에서 3.65(±.39)점으로 증가하였으며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t=8.67, p<.001$).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 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영역 중 가장 낮은 영역은 <목표설정>으로 평균평점 3.26(±.47)점이었으며 후에도 <목표설정>으로 평균평점 3.44(±.49)점이었다.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 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영역 중 가장 높은 영역은 <문제해결>로 평균평점 3.63(±.49)점 이었으며, 후는 <자기평가>로 평균평점 3.90(±.39)점으로 나타났다.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 전후에 따른 취업스트레스는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 전 평균평점 2.94(±.51)점에서 평균평점 2.83(±.53)점으로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3.46, p<.001$)[표 3].

표 3.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 전후 진로성숙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취업스트레스

특성	범주	사전	사후	사전사후 차이	Paired (p)
		M±SD	M±SD	M±SD	
진로성숙도	결정성	2.87±.42	2.81±.49	-0.07±.48	-0.74 (.461)
	참여성	2.43±.44	2.47±.52	0.04±.50	
	독립성	2.51±.44	2.52±.05	0.01±.47	
	성향성	2.51±.52	2.44±.61	-0.07±.61	
	타협성	2.63±.37	2.63±.43	-0.01±.48	
	계	2.59±.34	2.57±.44	-0.02±.4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기평가	3.36±.51	3.90±.39	0.54±.52	8.67 (.000)
	직업정보	3.48±.50	3.61±.48	0.14±.51	
	목표설정	3.26±.47	3.44±.49	0.18±.52	
	미래계획	3.46±.46	3.56±.50	0.10±.53	
	문제해결	3.63±.49	3.73±.49	0.10±.53	
	계	3.44±.39	3.65±.39	0.21±.38	
취업스트레스		2.94±.51	2.83±.53	-0.11±.50	-3.46 (.000)

4. 제 특성별 진로성숙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성숙도는 지원 동기에 따라 취업률이 높아져 지원한 군에서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 전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3.15, p=.025$). 이를 사후 검정한 결과 취업률이 높은 군에서 권유, 기타 군보다는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취업 준비도에서 많은 준비가 되어 있는 군에서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 전후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F=2.69, p=.032$). 이를 사후 검정한 결과 취업이 많이 준비된 군에서 조금 준비 안 된 군, 보통인 군보다는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제 특성별 진로성숙도

특성	구분	진로성숙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차이	t or F(p)
		M±SD	M±SD	M±SD	Scheffe
성별	여	2.59±.33	2.56±.42	-0.04±.38	-1.59 (.126)
	남	2.52±.49	2.72±.58	0.19±.64	
지원동기	적성 ^{ba}	2.52±.38	2.53±.46	0.00±.39	3.15 (.025) a)b
	높은 취업률 ^a	2.66±.36	2.89±.65	0.23±.83	
	권유 ^b	2.60±.31	2.56±.38	-0.04±.30	
	기타 ^b	2.62±.32	2.65±.38	-0.08±.35	
출업후 진로	간호사	2.58±.34	2.54±.43	-0.04±.40	1.27 (.283)
	보건교사	2.66±.08	2.85±.26	0.19±.33	
	공무원	2.71±.39	2.72±.45	0.01±.39	
	진학	2.58±.24	2.69±.37	0.11±.30	
진로결정 준비도	교수	2.56±.44	2.54±.55	-0.01±.33	0.20 (.935)
	본인	2.58±.32	2.54±.45	-0.04±.46	
	친구들	2.68±.24	2.64±.35	-0.04±.35	
	가족	2.57±.35	2.58±.44	0.01±.39	
현재취업 준비도	전혀 안됨 ^{ba}	2.56±.37	2.54±.42	-0.02±.44	2.69 (.032) a)b
	조금 안됨 ^b	2.58±.33	2.67±.37	0.09±.22	
	보통 ^b	2.57±.25	2.49±.40	-0.07±.36	
	조금 됨 ^{ba}	2.46±.40	2.48±.43	0.02±.29	
취업영 향요인	많이 됨 ^a	2.61±.51	2.88±.48	0.27±.68	1.06 (.383)
	순수실력	2.65±.37	2.69±.51	0.04±.53	
	가정배경	2.69±.21	2.77±.39	0.08±.42	
	외모	2.62±.32	2.54±.39	-0.07±.34	
취업준 비도	학교명성	2.66±.27	2.74±.50	0.07±.38	1.06 (.383)
	취업운	2.62±.34	2.52±.39	-0.10±.28	
	기타	2.55±.30	2.6±.60	0.05±.56	

5. 제 특성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현재 취업 준비도에서 많은 준비가 되어 있는 군에서 진로능력 강화프로그램 전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1.22, p=.031$). 이를 사후 검정한 결과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표 5. 제 특성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특성	구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t or F(p)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차이	
		M±SD	M±SD	M±SD	
성별	여	3.42±.38	3.57±.39	0.15±.40	-0.11 (.988)
	남	3.66±.42	3.82±.48	0.16±.28	
지원동기	적성	3.53±.41	3.67±.37	0.14±.33	1.31 (.272)
	높은 취업률	3.35±.38	3.60±.38	0.25±.43	
	권유	3.42±.34	3.65±.38	0.23±.34	
출업후 진로	기타	3.50±.44	3.75±.51	0.25±.49	0.74 (.568)
	간호사	3.42±.38	3.65±.39	0.23±.39	
	보건교사	3.51±.20	3.83±.24	0.32±.14	
	공무원	3.47±.44	3.58±.36	0.11±.41	
진로결정 준비도	진학	3.57±.36	3.68±.29	0.11±.28	1.07 (.370)
	기타	3.54±.76	3.77±.75	0.22±.40	
	교수	3.43±.45	3.53±.37	0.10±.40	
	본인	3.48±.44	3.72±.40	0.21±.33	
현재취업 준비도	친구들	3.37±.33	3.57±.36	0.21±.33	1.22 (.031)
	가족	3.45±.39	3.69±.39	0.24±.34	
	인터넷	3.38±.28	3.47±.27	0.09±.31	
	전혀안됨	3.35±.37	3.64±.38	0.29±.39	
취업영 향요인	조금안됨	3.40±.38	3.60±.39	0.21±.40	0.74 (.596)
	보통	3.47±.30	3.63±.35	0.16±.38	
	조금 됨	3.53±.50	3.77±.39	0.25±.37	
	많이 됨	3.67±.49	3.76±.50	0.09±.31	
취업준 비도	순수실력	3.43±.39	3.67±.39	0.23±.38	0.74 (.596)
	가정배경	3.29±.39	3.48±.40	0.19±.44	
	외모	3.56±.28	3.60±.39	0.04±.27	
	학교명성	3.34±.42	3.66±.31	0.32±.33	
취업운	취업운	3.44±.41	3.64±.38	0.20±.37	0.74 (.596)
	기타	3.51±.39	3.68±.43	0.17±.45	

6. 제 특성별 취업스트레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는 현재 취업 준비도에서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군에서 진로능력 강화 프로그램 전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2.52, p=.030$). 이를 사후 검정한 결과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표 6. 제 특성별 취업스트레스

특성	구분	취업스트레스				t or F(p) Scheffe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차이		
		M±SD	M±SD	M±SD		
성별	여	2.95±.50	2.83±.53	-0.12±.46	-0.58 (.566)	
	남	2.84±.61	2.83±.58	-0.01±.84		
지연배기	적성	2.91±.53	2.74±.49	-0.16±.44	1.16 (.325)	
	높은 취업률	3.01±.55	2.87±.52	-0.14±.50		
	권유	2.89±.48	2.85±.51	-0.03±.43		
	기타	2.99±.38	2.98±.79	-0.01±.82		
진로 진보 후 진 보	간호사	2.96±.50	2.84±.53	-0.12±.46	0.07 (.991)	
	보건의사	2.98±.53	2.88±.36	-0.10±.28		
	공무원	2.95±.56	2.86±.58	-0.09±.60		
	진학	2.83±.44	2.79±.43	-0.04±.42		
	기타	2.51±.94	2.40±.85	-0.11±1.41		
진로 개발 정보 제공 인	교수	3.07±.55	2.99±.47	-0.08±.51	0.61 (.658)	
	본인	2.91±.49	2.80±.57	-0.12±.55		
	친구들	3.00±.44	2.98±.39	-0.03±.36		
	가족	2.85±.59	2.73±.57	-0.12±.49		
	인터넷	3.14±.47	2.89±.47	-0.26±.37		
현재 취업 준비 도	전혀안됨	3.03±.46	2.94±.58	-0.09±.55	2.52 (.030)	
	조금안됨	3.01±.51	2.90±.50	-0.11±.47		
	보통	2.95±.45	2.80±.45	-0.15±.42		
	조금됨	2.68±.60	2.64±.61	-0.04±.44		
	많이됨	2.80±.59	2.64±.61	-0.16±.89		
취업 영향 인	순수실력	3.01±.52	2.86±.53	-0.14±.51	0.34 (.851)	
	가정배경	2.86±.59	3.02±.46	0.16±.56		
	외모	2.59±.38	2.70±.41	0.11±.26		
	학교명성	2.88±.51	2.77±.46	-0.11±.54		
	취업운	2.95±.48	2.75±.52	-0.21±.42		
	기타	2.83±.51	2.89±.67	0.06±.53		

IV. 논의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은 간호학생들에게 향후 간호

사로서의 전문적인 자질과 자부심 그리고 긍정적인 직업관을 가지고 성공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취업캠프와 실무자 실전면접을 활용하였으며 이를 사전사후 분석하여 간호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정도를 강화하고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으며, 그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의 일환인 취업캠프와 실무자 실전면접이 진로결정시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에서 사전 3.78점과 3.81점에서 사후 3.97점과 4.16점으로 나타났다. 실무자 실전면접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병원의 간호부서장을 통한 구체적인 피드백이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통합 조정하는데 유의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학교별로 취업상담 프로그램,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이름으로 다양화하고 있는데[14],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은 간호학생들이 진로준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진로목표 달성을 위한 면밀한 정보수집과 자기특성 즉 성적 및 제반 여건을 이해하고 원하는 진로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진로성숙도는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 전 평균 2.59점에서 2.57점으로 감소하였다. 3학년 여대생의 진로성숙도는 평균 3.32점[21], 여자 전문대학생은 평균 3.52점인 연구결과[22]와 비교하면 본 연구대상자들의 진로성숙도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 실시 전에 가장 낮은 영역은 <참여성>으로, 평균 2.43점에서 후에는 2.47점으로 나타났으나 4년제 대학생의 집단상담 프로그램 전의 평균점수는 3.03점, 후는 3.02점인 연구결과에서는 참여성이 가장 높은 영역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참여성은 프로그램에 학생의 능동적인 참여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8], 선행연구에서는 하루 2시간씩 6회에 걸친 프로그램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1단계 프로그램인 취업캠프는 한 반 단위로 하루 8시간 동안 진행되면서 학생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의 어려움과 2단계 프로그램인 실무자 실전면접은 본인의 취업선호기관의 실무자에게 면접 피드백을 받고 싶은 경우도 있겠으나, 일률적인 시간표에 근거한 즉 개인별 취업 선호기관을 고려하지 못한 것에 의한

참여도가 낮아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향후 학생별 취업선호 기관의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한 학생들의 참여도를 증진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참여도가 낮게 나타난 것과 같은 맥락으로서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 실시 후에 <성향성>이 평균 2.4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성향성은 진로결정에 필요한 사전 이해와 준비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이처럼 낮은 점수는 자신에 대한 이해 부족과 진로선택에 대한 준비를 잘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8]하는 것과 같은 맥락일 것이다. 낮은 성향성은 취업스트레스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변인으로[6],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을 통해서 막연하게만 생각해오던 면접을 실제 취업 선호도가 높은 간호부서장에게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으면서, 간호사가 되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이 한 가지 요인만이 아닌 다양한 제반 사항의 이해가 필요함을 경험하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34차시의 진로지도프로그램이 성향성을 향상시켜주었다는 연구결과[23]에서는 지속적인 적용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적용된 2일간의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의 내용을 보완해서 신입생 때부터 지속적인 진로교육을 통해 사전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 전 후에 따른 진로성숙도 중 가장 높은 영역은 <결정성>으로, 이는 자신이 선호하는 진로방향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8]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결정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3학년 여대생 대상의 연구에서는 <결정성>이 평균 2.91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로 나타난 연구결과[21]와 비교하면 본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대상자들은 약 80.4%가 간호사로 진로를 결정하였으며, 이러한 진로결정은 47%에서 자신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현재 취업준비도가 많이 되어 있는 학생과 취업률이 높아서 간호과를 선택한 학생에서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 전후에 따라 진로성숙도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같은 맥락에 견주어보면 간호학에 입문하는 학생들은 향후 진로를 간호사로 이미 결정한 상태로[24], 본인의 진로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진로를 결정했기 때문에 <결정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자기 자신

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진로 확신감은 향후 간호사로서의 업무를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러나 <결정성>은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 전에 평균 2.87점에서 후에 2.81점으로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기간의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을 통해서 본인이 취업하고자 하는 기관에 대한 제반 정보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향후에는 학생 개인별 원하는 진로에 따른 각 진로별 맞춤형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 전 평균 3.44점에서 3.65점으로 증가하였다.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 전과 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영역 중 가장 낮은 영역은 <목표설정>으로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 전 평균 3.26점, 후는 3.44점이었다. 3년제와 4년제 여대생 대상의 연구[9]에서는 평균 3.50점,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적용한 1학년 여대생 대상의 연구[24]에서는 평균 4.02점으로 가장 높은 영역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는 상반되었다. 목표설정 효능감은 자신의 전공이나 직업을 자신 있게 선택하고 후회 없이 결정할 수 있는 자신감을 의미하는 것으로[2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를 결정하는데 <목표설정>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9], 이러한 목표설정에 있어 자기효능감이 높은 대학생은 대학생활 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6].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을 통해 간호학생의 목표설정이 높아진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기는 하나, 진로선택에 대한 자신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자원과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서 자기 주도적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특성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 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영역 중 가장 높은 영역은 <문제해결>로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 전 평균 3.63점이었으나, 그러나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적용한 1학년 여대생 대상의 연구에서는 평균 2.90점인 연구결과[24]에서는 가장 낮은 영역이었으며 본 연구결과와는 상반되었다. 문제해결 효능감은 진로상의 난관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으로[24], 문제해결과정은 개인적인 성향과 관련해 매

우 다양할 수 있으나,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을 통한 자신감 증진으로 자기주도적인 분석과 종합능력이 함양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현재 취업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에서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 전후에 따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으며, 또한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 후에는 <자기평가>가 평균 3.9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자기평가는 자신의 능력과 가치, 욕구 등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에 적합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하는 것으로[9], 진로 선택 시 취업관련 제반 환경과의 상호작용과 더불어 자신에 대한 믿음이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취업스트레스의 평균은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 전 평균 2.94점에서 2.83점으로 감소하였다.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는 평균 2.83점[19], 평균 2.20점[2], 집단상담프로그램 전의 평균은 2.42점에서 2.35점인 연구결과[8]와 비교하면, 본 연구대상자들의 취업스트레스 정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수정[1]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전문대학생은 전문대학이라는 학교의 선택이 아닌 학과를 결정하므로 진로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취업스트레스를 적게 느낀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대상자들은 간호학에 입문할 때부터 간호사로 진로가 결정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보다는 비교적 취업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취업준비가 안된 학생은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 사전에는 평균 3.03점이었으나 사후에는 2.94점으로,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은 취업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간호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취업스트레스는 자신의 진로와 취업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게 하며, 진로선택과 결정에 따른 부담감을 사회생활을 위한 준비로서 긍정적인 기여를 하므로[6], 간호학생들의 취업 부담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진로나 취업에 대한 정보 확보와 취업역량 키우기 등을 통해 취업스트레스 정도를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졸업반 대상의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6회에 걸쳐서 진행했지만 취업스트레스 감소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8]에서 의미하듯이, 단기간의 1회성 프로그램이 아닌 장래 직업세계에 적용할 수 있

도록 좀 더 다양하고 전문화된 직업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위의 연구결과에 비추어보면, 취업캠프와 실무자 실전면접을 활용한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은 졸업반 간호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정도를 향상시키고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졸업반 간호학생들이 향후 간호사로서의 정체감을 형성하고 간호사로서의 직무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간호학에 입문 할 때부터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본 연구대상자들에게 적용한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의 세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다각적인 활용방안이 도모되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취업캠프와 실무자 실전면접을 활용한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이 3학년 졸업반 간호대학생의 진로성숙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취업스트레스 정도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고자 시도된 단일군 전후설계의 원시실험연구였다. 연구대상자는 2012년 7월 3일부터 7월 13일까지 J대학 간호과 3학년 247명이었다.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은 2단계로 구분해서 실시하였으며 1단계는 취업캠프로서 전문기관에서의 강사들이 1일 8시간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으며, 2단계는 실무자 실전면접으로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12개 취업기관의 간호부서장 21명을 초청하여 간호부서장 3인을 한 개의 팀으로 구성하고 학생은 5명을 한 개의 팀으로 구성해서 한 팀당 약 30-40여분 정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법 및 각 병원에서의 구두시험 및 면접방법을 구체적으로 피드백 하도록 하였다. 연구도구로 진로성숙도는 Crites(1978)가 개발한 진로성숙도검사(CMI: Career Maturity Inventory)를 김봉환[16]이 수정한 도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Betz, Klein and Taylor(1996)가 개발하고 이은경[18]이 타당화 시킨 도구, 취업스트레스는 정의석과 노안영[20]이 개발한 도구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진로성숙도는 진로능력강화 프로그램 전 평균 2.59점에서 2.57점으로 감소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0.74, p=.461$). 진로성숙도는 간호과 지원동기로 높은 취업률 때문에 지원한 학생($F=3.15, p=.025$), 현재 취업 준 비도에서 많은 준비가 된 학생($F=2.69, p=.032$)에서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 전 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 전 평균 3.44점에서 3.65점으로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8.67, p<.00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현재 취업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학생에서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 전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1.22, p=.031$).

셋째, 취업스트레스는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 전 평균 2.94점에서 2.83점으로 감소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3.46, p<.001$). 취업스트레스는 현재 취업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는 학생에서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 전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2.52, p=.030$).

결론적으로, 취업캠프와 실무자 실면접을 활용한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은 졸업반 간호학생 특히 취업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들의 진로성숙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정도를 향상시키고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학생들이 간호사 진로에 대한 확신을 통해 구체적인 사전준비와 이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의 세부 프로그램을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직업선택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목표설정을 할 수 있도록 신입생부터 졸업반에 이르기까지 학년별로 세분화하고 학생별로 취업선택기관을 고려한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참 고 문 헌

[1] 가수정, *전문대학생의 완벽주의, 취업스트레스,*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2] 최은숙,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대처 방식과 건강상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3] B. Furlonger, "An Investigation of The Career Development of High School Adolescents with Hearing Impairments: In New Zeland," *American Annals Of The Deaf*, Vol.143, No.3, pp.268-276, 1998.

[4] 김영희, "역할극 활용 기본간호학 실습 교육평가 방법에 대한 간호학생의 학습동기,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및 문제해결과정과의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지*, 제13권, 제1호, pp.147-155, 2012.

[5] 김정아, "일 전문대학 졸업학년 간호학생의 진로만족 영향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4호, pp.339-349, 2013.

[6] 조민제, *대학생의 진로성숙도가 취업불안 및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7] J. J. Benshoff, S. A. Kroeger, and V.A. Scalia, "Career Maturity and Academic Achivement in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es," *J. of Rehabilitation*, Vol.143, No.3, pp.40-44, 1998.

[8] 심미정, *대학졸업자의 취업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취업스트레스와 진로성숙에 미치는 효과*,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9] 강정은, *진로장벽, 심리적 독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4년제 여자대학생과 전문대 여자대학생의 비교-*,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10] T. Amir, "Facets of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British Journal of Guidance & Counselling*, Vol.34, No.4, pp.483-503, 2006.

[11] 박순주, "진로교육이 간호 대학생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8권, 제2호, pp.259-267, 2012.

[12] 박현숙, 배영주, 정선영,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

감, 자기효능감, 대응방법 및 학업·취업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제11권, 제4호, pp.621-631, 2012.

[13] 장정임, *진로상담프로그램이 학교밖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및 진로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14] 조이슬, *대학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과 구직효능감의 관계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15] 김형균,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의 성별, 학년별 관계분석*,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16] 김봉환,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 행동의 발달 및 2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17] R. R. Breeding, "Empowerment as a Function of Contextual Self-Understanding: The Effect of Work Interest Profiling o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Work Locus of Control, Consumer empowerment in rehabilitation," *Rehabilitation Counseling Bulletin*, Vol.51, No.2, pp.96-106, 2008.

[18] 이은경,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직업가치 및 진로의식성숙도의 관계*,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19] 강경훈, *대학생의 자아분화, 자아존중감과 취업스트레스 간의 관계*,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20] 정의석, 노안영,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우울증, 자아존중감 및 신체건강과의 관계 연구", *전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 제33권, pp.85-101, 2001.

[21] 이진희, *대학생의 학과만족도와 진로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한 진로성숙도의 조절효과*,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22] 이현경, *전문대학생의 직업상담호소유형별 진로성숙도 분석*,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23] 김옥, *진로지도 프로그램(CDP-H)이 전문계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24] 허정철,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0호, pp.227-236, 2012.

[25] 최은주, *미용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의사결정 및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26] 김평수, 김공, 서석운, 김영남, "경호 관련 전공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제31호, pp.47-71, 2012.

저 자 소 개

김 영 희(Yeong-Hee Kim)

정회원



- 1990년 1월 : 목포성신간호전문대학 간호과(간호전문학사)
 - 1997년 2월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2000년 2월 : 전남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03년 8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04년 3월 ~ 현재 : 진주보건대학교 조교수
- <관심분야> : 교육방법, 교내실습 및 임상실습